주말기획 | "응팔"이 남긴 것들

응답하라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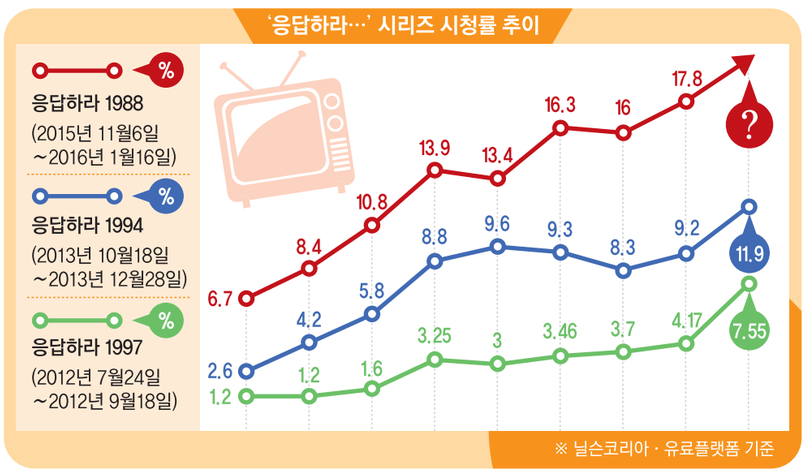
지난 석 달 동안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열풍이 뜨거웠다. '막장드라마'가 활개 치는 풍토 속에서 '응답하라 1988'(응팔)은 마음 따스해지는 푸근함을 안겨줬다. 어느새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응팔' 덕에 웃고 울며 행복해 했던 시간도 이제 지나고 있다. 16일 종영을 앞두고 '막장'의 스포일러가 넘쳐나지만 그래도 많은 시청자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결말을 지켜볼 것이다. '응팔'이 담아낸 정겨운 에피소드와 이 드라마가 탄생시킨 스타들의 면면은 또 다른 추억으로 남을 터이다. 스포츠동아도 그 추억을 함께 나누려 한다.

'응칠' '응사'에 없는 '응팔' 성공 키워드 있다

① 가족애
다섯 가족이 등장한 따뜻한 코믹가족극

② 우정
쌍문동 5총사·이웃들의 가슴 진한 울림

③ 노하우
'응칠' '응사' 복고 감성 담아 업그레이드



많은 이들은 '응팔'의 방송 전 그 성공 여부에 물음표를 던졌다. 연출자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응답하라 1997'(응칠)과 '응답하라 1994'(응사)에 이어 또 다시 손잡고 복고와 향수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공통점 때문에 '자기복제'의 우려를 산 탓이다. 하지만 이전 시리즈보다 시청률은 물론 매출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며 '형만 한 아우 없다'는 말을 뒤집어 놓았다. 그렇다면 '응칠'과 '응사'에는 없었던, 혹은 더욱 진해진 '응팔'만의 성공 키워드는 무엇일까.

●가족애…"내 끝사랑은 가족입니다"

'응팔' 포스터 속 문구다. 방송 내내 시청자는 여주인공 성덕선(혜리)의 남편을 찾기 위해 마치 추리극처럼 드라마를 뜯어봤지만, 제작진은 궁극적으로 코믹가족극을 그리고자 했다. 신 PD는 '응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가족 이야기를 '응팔'로 풀어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이뤘다.

'응팔'에는 이전 시리즈보다 많은 다섯 가족이 등장한다. 덕선을 중심으로 정환(류준열), 택(박보검), 선우(고경표), 동룡(이동휘) 등 극중 함께 성장해가는 '5총사'와 그 가족이다. 덕선의 부모인 성동일과 이일화를 비롯해 이들의 부모 역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또 형제와 자매 등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도 늘었다. 덕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언니 보라(류혜영)와 남동생 노을(최성원), 선우의 어린 여동생 진주(김설), 정환의 형 정봉(안재홍) 등이다.

이들 가족들이 엮어낸 스토리는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또 때로는 코믹함의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청춘의 로맨스를 넘어 가족애의 진한 감동을 안기며 '응팔'은 또 한 편의 잘 만들어진 가족극이라는 추억을 안겨줬다.

●우정…"웬열! 사랑보다 우정이죠"

'응칠'과 '응사'가 오롯이 여주인공의 성장과 함께 펼쳐가는 로맨스에 집중했다. 하지만 '응팔'은 그와는 다소 달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골목을 사이에 둔 '응팔'의 주인공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 서로 희생을 당연시 하며 친구를 위해서라면 먼 길, 갖은 고달픔도 마다치 않았다. 마치 형제와도 같은 이들의 모습은 그때 그 시절 훈훈한 풍경을 추억하게 했다.

더욱이 소꿉친구 덕선-정환-택은 삼각관계를 이뤘다. 하지만 쌍문동의 골목을 사이에 둔 '응팔'의 주인공들은 사랑 때문에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을 배신하지 않았다.

또 이들의 부모들이 나누는 이웃사촌의 정감 어린 모습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줄 알았던 시대의 따스함을 떠올리게 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서로 보듬던 우리네 일상의 또 다른 '사촌들'이었기 때문이다. '쌍문동 태티서' 라미란·이일화·김선영의 우정도 가슴을 울렸다.

●노하우…"촌스럽지만 따스하게"

'응칠'과 '응사'를 통해 제작진의 실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사실 이야기가 더욱 먼 과거로 날아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 그 시절 풍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시청자와도 활발히 교감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 시절의 다양한 세상살이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가족, 사랑, 우정 그리고 따스한 심성을 지닌 이들의 보편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신 PD는 "촌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가족애"를 말했지만 촌스러움은 오히려 보편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유력한 정서가 되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또 다른 매력 찾아낼 연출자 만나야

●혜리 ('성나정' 고아라로부터)


고아라

아직 확연히 검증되지 않은 연기력. '응팔' 속 덕선의 모습은 연기라기보다 혜리가 가진 본연의 매력으로 보는 게 맞다. 또 다른 매력을 찾아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연출자를 만나는 일이 남은 과제다. 신원호 PD처럼. '응팔'에서 마음껏 경험한 '홍일점놀이'는 당분간 쉬자. '응사' 고아라의 선택이 혜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응사' 이후 고아라는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를 택했다. 이승기, 안재현 등에 둘러싸인, 역시 홍일점. 남자친구들과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비슷했다. 반복적인 이미지를 좋아할 너그러운 시청자는 없다.

주인공만 맡겠다는 욕심 '과유불급'

●류준열 ('쓰레기' 정우로부터)


정우

'소셜포비아' 등 독립영화에서 실력을 쌓아 기본기는 충분하다. 다만 지금의 인기에 고무돼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만 맡겠다고 욕심내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 정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을 만하다. 정우는 '응사' 이후 여러 제안을 받고도 2년이 지나서야 영화 '쎄시봉'을 내놓았다. 제작비 규모 90억원을 책임져야 하는 주인공. 성적은 170만명. 영화 주연으로 관객과 만나려 2년을 흘러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류준열의 선택이 궁금하다.

■ '응팔' 연기자들에게 전하는 '응답하라의 저주' 탈출 방법

'응답하라 1988' 신드롬이 거세지만 한편으로는 앞선 시리즈에서 반복된 '응답하라의 저주'라는 징크스도 있다. '응답하라 1997'과 '응답하라 1994'(응사)에 출연해 스타가 된 연기자들이 다음 작품에서 어김없이 흥행 실패를 맛본 탓이다. 물론 해법은 있다. '응사' 선배들의 선택을 '거울'로 삼는다면 '응팔' 주역들은 그 불운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맨스 장르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박보검 ('칠봉이' 유연석으로부터)


유연석

'덕선이 남편 후보'로 얻은 인기에 심취해 혹시 계속 로맨스 장르를 고집하지는 않겠지. 시청자를 사로잡은 로맨스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연기자로서는 아직 신인이어서 보여줘야 할 재능이 더 많다. 물론 인기 절정의 상황을 고려하면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 제의가 쏟아질 것이 뻔하다. '응사'의 유연석이 그랬듯 멜로를 섭렵하겠다고 나선다면 위험하다. 유연석은 2003년에 데뷔해 악역부터 조연까지 두루 거치며 착실하게 성장한 배우다.

예능보다 배울만한 작품 '금상첨화'

●고경표 ('해태' 손호준으로부터)


손호준

'응팔'의 성공이 곧 '고경표의 성공'은 아니다. 갑자기 높아진 인기로 러브콜에 모두 응하면 금방 소모될 수 있다. '응사' 손호준이 그랬다. 이젠 '예능인'에 가까운 느낌마저 풍긴다. '응사'의 기운을 잊지 못해서인지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청춘'과 '삼시세끼'에 단골 출연하며 예능프로그램에 쏠린 탓이다. 고경표에게 실력 쌓기가 급선무. 선배들로부터 배울 만한 작품이라면 금상첨화다. 영화 '7년의 밤' 출연은 베스트. 류승룡, 장동건과 만난다.

다작 조연보다 한두 편에 집중 추천

●이동휘 ('삼천포' 김성균으로부터)


김성균

허동휘는 '쌍문동 5총사' 가운데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을 만한 주인공이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소위 '감초'로 불리는 캐릭터에 안성맞춤이다.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방위에서 활동하는 조연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두 편에 집중해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후자를 추천하고 싶다. '응사'가 끝나고 김성균이 출연한 영화는 무려 6편. '군도:민란의 시대'를 빼고 전부 저조한 성적에 그쳤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 女기자가 꼽은 '응팔 슈퍼스타 3인'

'응답하라 1988'을 채운 여러 캐릭터들은 누구도 허투루 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인물들이다. 그래도 보는 사람에 따라 '호감도'는 나뉘기 마련. 스포츠동아 여기자 3명이 드라마에 감칠맛을 더한 '응팔 슈퍼스타 3인'을 꼽았다.

'진정한 로맨티시스트' 최무성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덕선(혜리)의 남편에게만 쏠려있었다. 정환(류준열)과 최택(박보검)을 양쪽에 두고 저울질하게 바빴다. 하지만 모두 사랑에는 서툰 '애송이'일 뿐. '응팔'의 진짜 로맨티시스트는 '봉황당 택이아빠' 최무성이다. 스타 바둑기사 아들이 꼬박꼬박 타오는 거액의 상금으로 적금을 부어 쌓은 엄청난 재력. 어릴 적 함께 자란 고향 동생 김선영의 형편을 살피고 선뜻 돈을 건네는 넉넉한 마음. 그렇게 커지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김선영의 밤길 귀가를 걱정해 묵묵히 길목에 마중 나와 기다리고, 심지어 밥 먹다가 "날도 추운데 나랑 같이 살래?"라고 묻는 '상남자 프러포즈'까지. '돌싱'이면 어때. 1등 신랑감이다. (이해리 기자)

'최고의 통크니스트' 라미란



●…'치타여사' 같은 아줌마가 우리 동네에도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반상회 끝나면 짜장면 돌리고, 치킨도 여러 마리 주문해 '치킨파티'를 벌여준다. 지금 시대에도 귀하디귀한 전복죽을 한 냄비 건네기도 한다. 통만 큰가. 아이들이 먹는데 느끼할까봐 함박스테이크 옆에 총각김치와 깻잎을 놓는 센스. 또 연하남편 김성균, 아들 정봉(안재홍)과 정환까지 '세 아들'을 키우면서 아침식사마다 전쟁이지만 "하나, 둘, 셋!" 한마디면 정리된다. 이들을 방에서 튀어나오게 해 식탁에 앉혀놓는 '조련사'의 모습까지 갖췄다. 게다가 춤도 잘 춰, 노래도 잘 불러, 술도 잘 마시고, 못하는 게 없다. 아,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지지 못한 게 있어야 세상은 공평한 거지. (백솔미 기자)

'애교쟁이 공주님' 진주



●…선영의 늦둥이 딸.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양 볼은 꼭 한번 만져보고 싶게 한다. 먹는 것만 손에 쥐여주면 그게 누구든 그 품에 가서 착 '앵기는' 꼬마의 넉살은 덕선이도 따라갈 수 없다. 장래 꿈이 '요술공주 밍키'가 되는 것이고,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순수한 영혼이다. 또 '달려라 하니' '어린이 명작동화' 등 TV만화영화 주제곡을 줄줄이 따라 부를 정도로 총명하다. 노래를 부르면서 씰룩거리며 추는 엉덩이춤은 보너스. 좋아하는 만화 비디오를 빌려줬다는 말에 선보인, '어머!' 하며 놀라는 연기는 원더걸스의 소희도 울고갈만하다. 쌍문동 골목 안에서 아저씨와 아줌마, 형,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시청자들의 관심까지 독차지한 공주님이다. (이정연 기자)

공연 랭킹

1월 8일~1월 14일 자료: 인터파크

1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헤드윅〉	윤도현
2	뮤지컬 〈레베카〉	류정한
3	뮤지컬 〈레미제라블〉	정성화
4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유준상
5	뮤지컬 〈시카고〉	최정원
6	뮤지컬 〈드라큘라〉	김준수
7	뮤지컬 〈터닝메카드〉	-
8	뮤지컬 〈마타하리〉	옥주현
9	연극 〈옥탑방 고양이〉 - 대학로	김선호
10	번개맨의 비밀 4 - 양코르	-

연예뉴스 스테이션

쯔위, 대만 국기 사용…중국서 비판 여론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사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모습이 중국에서 논란이 돼 현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대만 출신의 쯔위는 작년 11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 해당 장면이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넷 캡처 사진이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만 독립 반대를 주창해온 대만 가수 황안이 "쯔위가 대만 독립 세력을 부추긴다"고 비난해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3일 웨이보에 "JYP는 문화기업으로서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쯔위도 16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진정될 때까지는 중국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준호·김대희 코코엔터 폐업 무혐의 처분

파산한 전 소속사로부터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와 김대희 등 4명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였던 김준호는 일부 주주와 회사 폐업에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코미디 배우 잭 블랙, '무한도전' 출연

할리우드 인기배우 잭 블랙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한다. 목소리 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쿵푸팬더3' 홍보를 위해 20일 내한하는 잭 블랙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무한도전' 녹화에 참여한다. '쿵푸팬더3' 측은 잭 블랙 내한에 맞춰 '무한도전' 제작진에게 출연 가능성을 타진했고 최근 함께 하기로 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코미디 배우 잭블랙과 '무한도전' 출연진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미경, 14년 만에 드라마 출연

배우 원미경이 1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원미경은 2월 말 방송을 시작하는 MBC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에서 주인공 배숙녀 역할을 맡았다. 극의 배경인 중식당의 안주인으로, 김영철과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원미경의 드라마 출연은 2002년 MBC '고백' 이후 14년 만이다. 제작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러브콜을 거절해온 원미경은 탄탄한 대본과 신선한 캐릭터에 매력을 느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